

특별취재

금산파출소, 여성화장실 안전점검

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 금산파출소(소장 임진욱)는 최근 서울 강남 노래방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금산면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인 순찰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제시 금산면은 모악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금산사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이 있어 1년 내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는 관광지다.

특히 금산사를 중심으로 사찰 내외부 주차장·급경사지 일대에 다수의 공중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 주간에 화장실 잠금장치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화장실 비상벨 및 주변 보안등 작동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한 뒤 고장 나거나 미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처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는 재난안전체험관과 민방위 실천체결 훈련장, 공중 직업인 연수원 등 재난안전체험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읍시, 재난안전체험시설 건의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에 건립 요청... 자연재해 위험지구 2개소 정비도

정읍시는 정읍에 국민 재난안전체험 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국민 안전처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시는 "재난안전종합체험관과 민방위 실천체험 훈련장 공중 직업인 연수원 등 재난안전체험시설을 정읍시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관리돼 온 금봉천 정비사업 추진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D등급 평가를 받은 정평동 충무공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공사의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시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험시설을 유치해 이순신평화안전체험공원을 조성, 국난 극복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영웅

이자 조선 선조 22년(서기 1589년) 초대 정읍현감을 지낸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위대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위기상황 시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5일 관계부처를 방문해 재난안전체험시설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전국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뛰어난 정읍에 재난안전체험시설을 집중하여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가 각 부처에 건의한 재난안전 관련 사업은 국민안전처 소관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200억원 ▲민방위

실천체험훈련장 건립 25억원 ▲금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99억6천만원 ▲장명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6억원과 고용노동부 소관 ▲공중직업인연수원 건립 25억원 등이다.

김생기 시장은 "예측 불허의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시설의 사전 정비와 시민들의 대응태세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연간(2014년 기준) 업무상사고 사망 재해자는 992명이며, 이중 떨어짐 사고 사망률 비중이 가장 높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부안군이 201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5개 사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5일 정책실명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06개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적정성 및 누락사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35개 사업을 201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201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 되는 사업,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 주민의 관심이 높고 예산규모가 커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보훈회관 건립과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공공실버주택 건립,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참뽕의식상품 R&D 및 레시피 개발, 울력관광객접마을 육성 지원 위도 고습도지길 조성사업, 부안 헬리자파크 조성사업 등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교월동, 1일 동장제 운영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는(동장 박상문) 26일 열린 행정 구원을 위해 201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일 동장제」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달 1일 동장으로는 옥산동 산정마을의 김성자님을 임명하고 이날 하루 동안 업무보고 청취, 결재체결, 신청사 신청현장 및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1일 동장으로서의 직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1일 동장 체험을 마친 김성자님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정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종량제봉투 미사용 단속

정읍시는 수성동 택지지구 원룸밀집지역 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구역에 대한 야간 단속을 펼쳤다.

시는 "최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야간에 차량 등을 이용해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 한 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24일 환경관리과 직원들을 투입해 쓰레기 배출이 많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집중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

37개 사업 선정... 19개 현재심사중

정읍시는 지난 25일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정부의 예산지원방식이 지역균등분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공모사업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모두 8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천188억원이다. 이중 5월 현재 65개 사업에 응모, 37개 사업에 선정돼 1천720억원을 확보했고 19개 사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사업은 제외됐다.

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과 응모 전인 45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마련해서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보고회에서는 이에 관련 심도 있는 논의와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날 양심목 부시장은 "공모사업 중에서도 우리시 성장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 할 ▲국립한국문화관 건립(450억원) ▲선도 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140억원)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100억원) ▲공공실버주택 건립(121억원) 등이 반드시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평선 홍보클럽회장과 회원들이 경기도 시흥시 영남단지 행사장에서 김제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활동에 나섰다.

지평선홍보클럽, 김제쌀 자랑

우수인증상상에찬쌀·보리 등 10여종 홍보

"새민국의 중심도시 김제"의 시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정점이 지평선 홍보클럽회장과 회원들이 경기도 시흥시 영남단지 행사장에서 김제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날 농·특산물 홍보에 우수한 쌀로 인증된 상상에찬 쌀과 흑미, 보리, 콩, 울무, 누룽지 등 10여종의 품목을 가지고 시식회 등 홍보행사를 하였으며 시흥시민들은 직접 농사지어 만들어 온 농산물에 대한 호기심과, 식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네 김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하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구입하게 될 것 같아 만족

해 하였다. 또한 전국최초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가 김제 벽골제에서 9월에 개최됨에 따라, 세계적인 축제의 한미당을 보고 지평선 고장의 향취와 더 많은 직거래의 농산물을 보고 구입하고 싶으면 그때 만나자고 지평선 축제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지평선 홍보클럽은 올해로 14년째 타 지역에서 매년 3~4회 수도권 지역을 찾아 농·특산물 홍보와 관측활동을 펼치고 있고 회원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며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종의 하느님"이라고 말해 봉사정신을 불수가 있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격포해수욕장 불법 상행위 대책 절실

해안가·백사장 등 각종 차량과 포장마차 난립해 관광객 눈살

산·물·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변산반도 격포해수욕장 공원 밖 피서지의 불·탈법행위가 극성을 부이면서 관광부안 이미지가 크게 훼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격포해수욕장 해안가 및 백사장 대명리조트 도로에 각종 차량과 포장마차들이 정제 불명의 음식들을 팔며 불법 상행위를 일삼고 있어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

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상인들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양제 상인들의 도를 넘는 불법 상행위와 불친절은 격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어 서해안 관광중심도시 부안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격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곧 여름 성수기인데 불법 상거래가 관을 치면 합법적인 업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며 강력한 지도단속이 절실하다고 성토했다.

한 상인은 "이런 불법과 탈법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부안군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공멸' 밖 지역 내는 이유를 들어 지도단속에 소극적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maller images of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